



ECC Plaque Installation Prayer

김문소 장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왕상 8:29)” 라고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제 우리 모두 여기 모여 첫 희년 ECC 현당 기념판 ECC Plaque를 주 하나님께 봉헌하려 합니다.

6월호 목차

- ☞ ECC PLAGUE
- ☞ 떠나는 자는 경이로우니
- ☞ 교인위원회
- ☞ 당회 위원회
- ☞ 구역장 및 교구장 명단
- ☞ 역사 편찬 위원회
- ☞ 홍보 위원회
- ☞ 권사회
- ☞ 평의 평화 환경 위원회
- ☞ 다시 읽는 야곱의 족
- ☞ 해외 선교회
- ☞ 집사회
- ☞ 웨마의 밤
- ☞ 여선교회
- ☞ 남선교회
- ☞ 구루터기 2부
- ☞ 중고등부
- ☞ SUN FLOWER
- ☞ 교우동맹
- ☞ 새교우 원영회
- ☞ kcb 갤러리

이 현당 기념판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곳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이 곳이 허물 많은 우리 죄가 사함받는 곳이며,
 이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제 2의 희년 2053년에, 이 곳에 넣어둔 Time Capsule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열어볼 때,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여정이 그들에게 멋진 본보기가 되어, 제 3의 희년, 제 4의 희년을 아름답게 엮어가는 순례자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 메세지>

“떠나는 자는 경이로우니”

이영길 담임 목사

자크 아탈리라는 사회학자가 지은 ‘유목하는 인간’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자는 떠나는 자들은 경이롭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인류 사회는 발전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경이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두 떠남의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단기간만 머무르고 또 떠나십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연수를 위해서 오신 분들, 이분들은 잠시 머물러 오셨지만 사실 많은 경이로운 자취를 남기시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십니다. 한편 직장 관계로 오셔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새로운 직장을 위해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떠나는 분들을 우리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붙잡고 싶

습니다. 특히 함께 오래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떠날 때는 더 이런 마음이 강렬합니다. 최근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떠나는 자는 경이로우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이로운 자들을 환영하는 곳이고, 아울러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경이로운 자들을 축복하는 순례자들의 오아시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많은 분들이 오고가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떠남의 이야기를 안고 우리 교회를 찾아 오시는 경이로운 분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십시오.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한층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경이로운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2012년도 구역장 및 교구장 명단

북동교구-교구장: 박신영 장로	북동1구역 구역장: 김정림 집사	남서교구-교구장: 최연일 장로	남서1구역 구역장: 이정민 집사 남서2구역 구역장: 권오훈 집사
북서교구-교구장: 박영철 장로	북서1구역 구역장: 김현구 집사 북서2구역 구역장: 정명숙 교우	남동교구-교구장: 김정선 장로	남동1구역 구역장: 안명훈 집사
중앙교구-교구장: 조준호 장로	중앙1구역 구역장: 이숙재 권사 중앙2구역 구역장: 이경자 집사 중앙3구역 구역장: 김진홍 집사 중앙4구역 구역장: 강민형 집사 중앙5구역(빛과 소금) 구역장: 신보경 집사	International Fellowship 교구-교구장: 김성현 장로	구역장: 백승한 집사
중서교구-교구장: 안태준 장로	중서1구역 구역장: 방경남 집사 중서2구역 구역장: 김시찬 집사 중서3구역 구역장: 이유택 집사 중서4구역 구역장: 지 훈 집사 중서5구역 구역장: 김민준 집사		

2012년도 당회 각 위원회

당회	위원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한승희 장로
	1부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장로
	2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범 장로
	3부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
		부위원장	권복태 집사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예배예술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장로
	기획관리/건물운영	위원장	김성현 장로
	교인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	위원장	김성현 장로
		부위원장	안성완 집사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안태준 장로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장로
		부위원장	박신영 장로
	60주년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영범 장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장로
		위원	김영범 장로
위원		안태준 장로	
	감사		박신영 장로
	노회 총대		한승희, 박신영 장로
	공천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부위원장	이정규 장로

교인위원회

이정규 장로

< 2012 년도 전교인 수양회 >
 일자: 8월 24-26일(금-주일)
 전체 주제 : “예배자로 바로 서라.”
 (출애굽기 24:12)
 주제강사: 박 광래 목사님(Fresno .CA .장로교회)

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온가족이 오셔서 쉬을 언
 고 서로 몰라서 서먹서먹 했던 분들과 금방 친해지
 는 역사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의 강에
 푸-옥 빠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2 년 전교인 수양회가 8월
 24~26일(2박3일)동안 Pilgrim Pines N.H 수양

기도로 준비하시며 궁금한 것은 이정규장로나 김
 동규집사께 문의 바랍니다.

역사편찬 위원회 보고

부위원장 박신영 장로



보스톤 한인교회 60주년 기념 역사편찬 위원회에서는 내년 10월까지 60주년 기념 역사집을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역사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료스캔을 마무리하고, 그 동안 모은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일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팀별로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초고를 작성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다시 발견하고, 아름다운 우리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A. 편찬위원회 구성

마태팀 - 김정선, 지훈, 김계숙, 김화옥
마가팀 - 박신영, 최정렬 A, 박기춘, 신선희
누가팀 - 김문소, 배한원, 이승연, 최준영, 최정열 B, 이태호
요한팀 - 안성완, 김한나, 이혜승, 남궁원
베드로팀 (Multimedia) - 장양של, 한승희
안드레팀 (Design) - 미정; Volunteer - 신소정
고문 - 백린, 신영각, 김성빈, 조준호, 윤경문
협조 - 60주년 행사위원장 (김영범)

B. 활동

1. 보스톤 한인교회 60주년 개관 (박신영 장로)과 보스톤 한인교회 60년사 Table of Contents (working draft; 김정선 장로) 작성

2. 역사편찬위원회의 교회사 워크샵과 세미나

- 필그림: 보스톤 한인교회 60년 역사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이야기, 어떻게 엮어 낼 것인가?”
강사: 백 순 장로 (위싱턴 한인교회 역사편찬 위원장)
- 워크샵 일시: 4/28 (토, 오후 5시, Parlor)
참가대상 - 역사편찬 위원들, 관심있는 당회원 및 교우들
 - 세미나 일시: 4/29 (주일, 오후 1시 30분, Room 4)
참가대상 - 당회원들과 관심있는 모든 교우들

3. 역사편찬 위원 Day retreat

- 일시: 6/2 (토, 오전 10시 - 오후 4:30)
- 장소: 김정선 장로댁
- 내용: 각팀에서 담당할 역사자료를 검토한 보고와 토의, 이영길 담임목사님의 보고 (이민 신학과 보스톤 한인교회 역사편찬의 의미), 자료정리

4. 정기 팀장 회의: 매주 월요일 저녁 8:30분 Skype 미팅

C. 추후 계획

1. 6월 중으로 자료 스캔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초고를 만들 계획.
2. 60주년 행사위원회, 홍보위원회와 협의해서 보스톤 한인교회 창립 초기 사진전을 열 계획.

홍보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지난 두 달간 홍보 위원회의 각 팀의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판 및 도서 관리팀 (김한나 집사, 배한원 집사, 최정열 집사, 윤경문 목사)
 - 2012년 6월 교회 소식지 [한올타리] 발간 (6/10): 수고해 주신 편집팀 (김한나 집사, 배한원 집사, 하성권 교우, 윤경문 목사) 과 글을 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도서관리는 최정열 집사님께서 담당해서 새롭게 정리해 주시기로 했고, 아동도서는 계속해서 배한원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2. 멀티미디어팀 (유승오 집사, 김상기 집사)
 - 교회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영상기록물을 제작 보관하고 있습니다.
 - KCBoston.org domain 을 5년 계약으로 갱신했습니다 (김정선 장로님).
 - 김상기 집사님을 중심으로 사진동호회를 발족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IT (information technology) 팀 (안성완 집사, 유승오 집사, 이봉욱 집사, 정재원 집사, 방경남 집사, 하대준 집사)
 - 방송실 봉사: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께 (1부 - 방경남; 2부 - 하대준 /이봉욱 집사) 깊이 감사드립니다.
4. 대외 협력팀 (백승한 집사, 김희수 교우, 윤경문 목사)
5. 예술 전시팀 (준비팀 - 김희정 집사, 배광현/정유미 부부, 신광성 집사, 심기선 집사, 이경자 집사, 이원걸/전신애 집사 부부, 한문수 집사)
 - 신광성 화백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시실 설비에 필요한 부품들 (레일, 와이어, 행어) 구입했습니다. 7월중에 배편으로 도착하면, 전시실 설치작업 예정. 아울러 여분의 설비부품으로 현관 라운지 쪽의 통로 벽에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신 신광성 화백께 감사드립니다.

권사회

조순래 권사

지난 5월 둘째 주일 월례 권사회로 일곱분의 권사님들이 Fellowship Hall에 모여서 좋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와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교우님 한분 한분에 대한 건강 회복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회 각 부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교우님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하기로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의 이동홍 선교사가 수고하시는 선교지에 선교현금을 보내기로 하였고, 우리 교회의 해외선교를 돕기 위한 헌금 바치는 시원한 10월 초에 권사님들이 떡, 케익, 과자 등을 손수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상록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교우님들의 기도, 또한 부탁 드립니다.



역사편찬위원회 KCB 60년 역사편찬을 위한 Seminar에 참석한 후

권복태 집사

2012년 4월 30일(일) 2부 예배후 상기 Seminar에 참석한 바, 느낀 소감을 아래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보스톤 한인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1953년 본 교회의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60여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이 Seminar 동안 내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60년사라는 주제를 통하여 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역사 의식), 우리의 지난 날은 어떠하였으며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4개조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역팀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조직력, 그리고 기민성과 방향성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라는 소명을 현재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ECC 건축이나, 60년사 발간 등 매 번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그 뜻을 이루어가심을 보며 경배를 드립니다.

2. 역사가 뜻하는 바와 우리와의 관계:
60년사의 가(假) 표지는 우리교회 본당에서 있는 Stained Glass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

수님)의 모습과 함께 나머지 여백에 보스톤 한인교회의 지난 날들의 많은 사진들이 모자이크처럼 장식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란 우리 교회 교인들 한사람 한사람의 지나간 발자취이며 이것을 계속 모자이크처럼 엮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배워야 하는바, 성경은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깨우치지 못한 개인이나 민족 혹은 국가가 언제나 어려움과 환난에 빠졌던 경우를 무수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일생을 모자이크처럼 이루어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투로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3.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후,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역시 많은 잘못과 시행 착오를 범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되는 60년사는 우리 교회의 지난 날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둡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도 되돌아 보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수록 된다면, 향후 다가올 100년사가 쓰여질 때 이 60년사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성경 같은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편찬 위원들과 관계 되시는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2월부터 정평환에서 봉사하면서 느낀 것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저기 안걸리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회의때마다 새로운 Idea를 내고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일을 수행하시는 정평환 위원들을 볼 때마다 든 생각은, ‘의도는 좋은데, 가능할까...’ 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일은 좀 무리가 아닐까...’ 이 일은 좀 호응이 없을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은 정말 될까하는 약간의 패배주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정평환에서의 제 예상은 늘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될까 했던 일들이 은혜롭게 마무리 됨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생겨났던 패배주의는 어느덧 사라지고, 대신 한 성경구절이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평환에서 봉사한 기간은 4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참 알차고 exciting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중의 정평환 활동을 소개합니다.

1. 후보수거

예배예술위원회와 협조하여, 1부 예배후 후보를 수거하여 2부 예배에 재활용. 매주 35-40장의 후보를 수거하여, 2부 예배 후보 인쇄를 30부정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2. 환경선교주일

지난 지구의 날 4월 22일에, “지구의 날” 과 관련된 북마크를 만들어 예배 예술위원회와 같이 교인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이 북마크 디자인은 김정선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3. 어린이책 바꿔보기 행사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6일 “어린이책 바꿔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린이책을 바꿔봄으로써

책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운동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김현주 집사님께서서 idea를 내시고 행사까지 주관하셨습니다.

4. 정평환 소식 이메일 발송

김현주 집사님께서서 수고하셔서 교회에서 급히 전교인께 메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첫 메일로 정평환 소식을 발송하였습니다. 메일 리스트 작성에 교인위원회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5. 시내산 동우회 활동

지난 4월과 5월 4차례에 걸쳐 산행을 시행했고, 6월 24일 (Blue Hill - half day), 7월 4일 (Mt. Major - full day) 그리고 7월 22일 (World' s End)에 다음 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장로님께서서 수고하셔서 시내산 동우회 blog를 열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erid=JasonKimSR

6. Earth Care Congregation (ECC) Point

어렵게만 느껴졌던 ECC certified church Title을 곧 받게 될듯 합니다. ECC certified church가 되기 위해서는 총 100 point가 넘어야 하고, 각 분야에 최소 25 point가 되어야 합니다. 멀지않아 ECC Certified 교회란 Title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그리고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섬세함을 깊이 느낄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정평환에 관심있으신 분은 정평환 위원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김정선, 김현주, 김우진, 남궁원, 박성준, 사공현일, 윤경문, 안성완

다시 읽는 ‘야곱의 춤’

김화옥 집사

요사이 ‘용비어천가’의 뜻이 변질되었다 들었다. 지위 높은 사람들을 아부성 짙게 칭송하는 말이라 들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님이 들었으면, 무척 섭섭해 하실 게다. 이 글이 우리 이영길목사님을 향한 ‘용비어천가’가 아님을 먼저 밝힌다. 또한, ‘알바’가 되어 책 선전용 리플류이 아님을 밝힌다. 만약 그렇게 읽힌다면, 그건 모두 이글을 쓰는 김집사의 잘못이다.

우리 교회가 윈살이 되던 해 초여름이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첫 주일 예배시간 이었다. 우리 가족은 ‘제발로 찾아온 새신자’로 소개 되었다. 예배 후 새교우 환영을 받으면서, 가족 사진이 찍혔다. 지금은 없어진 고급스런 옛 팔러에서 말이다. 다음 순서는 물론 목사님과 인사하고 그의 사인이 된 책을 받는 것이다.

그 주일, 우리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다. 저자는 친필이다만, 속필로 사인해서 그의 저서를 주었다. 난 필인지 그건 판단할 수는 없다만, 육필이었다. 덕담을 얻어서 받는 책에 당연히 감사했다. 아무 공로없이 받는 공짜 책이니 더욱 감사했던 거다. 책은 ‘야곱의 춤’인데, 제목은 난감하다. 야곱의 신앙 이나 야곱의 기도는 들어 보았다만, 야곱이 춤을 췄다는 말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 돈을 주고 산 책이 아니면, 잘 읽지 않는다. 제 손과 눈으로 고른 책이 아니면 읽기 쉽지 않다는 소리다. 저자가 사인해서 준 증정본, ‘야곱의 춤’도 예외는 아니다.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하는 과제도 아닐 것이므로 당장 읽어야 하는 떠밀림도 없었다. 그 저 설교 모음집으로 치부 했고, 한동안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읽으매, 덮으매, 다시 책꽂이에 꽂아 놓는둥 마는둥,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소리다. 그동안 만지는 덮히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대신, 저자가 직접 사인 하면서 썼던 글귀는 이따금 들여다 보았다. 그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하고, 읽는 중이다.

그의 책을 다시 정독해야 하는 충분하고도, 피할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 교회 창립 60주년 역사 편찬위원회에 편집위원으로 징발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김정선 위원장님에게서 받은 일은 현 담임목사님에 대해 몇자 적어 초안/초별을 만들어 보는 거다. 일을 위해 그의 신앙과 목회 철학 등을 웬만하 알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몇몇 자료들을 모아야 하는 일이 선행(先行)이다. 그가 쓴 책은 내 책꽂이에 꽂혀 있어 쉽게 구할수 있는 자료일테니, 나는 강요된 독서를 시작한 것이다. 정독과 속독과 난독이 섞인 김집사만의 이유있는 책읽기가 시작 되었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 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설

교로 말한다고도 했다. 법관이 딱딱한 판결문을 쓰는 일은 ‘천형’(天荊)이라고도 할 때에, 목사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은 훈계이기 십상일 것이다. 따라서, 법조문을 쓰는 일은 가름에 논바닥이 말라서 갈라지듯 단내나는 작업일 것이고, 목사의 설교집은 용변조에 매섭게 꾸짖는 말이기 쉽다. 그의 첫번째 책 ‘야곱의 춤’에선 훈계하지 않는다 라고 어느 서평자(書評者)가 말했다. 서평자의 말에 동의 하며 그의 글의 문체도 딱딱하지 않아 준열히 질책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글은 신앙 수필처럼 읽힌다. 설교원고로 쓰여진 글이 묶여져 책으로 나왔으니 책으로 읽혀져야 마땅하다는 말일 것이고, 잔잔한 산문처럼 목청 높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용한 피천득선생의 수필과 같은 인상이란 말일 게다. 그의 글에 자주 등장하고, 그가 존경하는 누엔 신부님의 말과 글도 같은 인상일 것이라 지레 짐작한다. 그렇다고 그의 글이 그의 설교보다 못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의 글은, 글로서 나무랄데 없고 흠잡을 데 없는 문자선교일 것이므로, 강박한 김집사가 읽으면서 은혜 받는다.

그가 신앙간증집에서 부터 시집(詩集)에 이르기 까지 두루 열람했음을 안다. 그가 폭넓은 독서량을 축적했음은 그의 글과 설교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의 풍부하고 두툼한 예화들이 그걸 증명한다. 하긴, 많이 읽고 쓰고 묵상하며, 기도하는건 목사인 그의 사명이요 임무일 것이니, 그가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만 말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워낙 읽고 쓰고, 고민하지 않는 이들이 많으니,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참 별스럽지 않은 일이 별스러워지는 세상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권 두권 야곱시리드로 부터 어머니 교회를 거쳐 르호봇까지 왔다. 지난 십여년간 저자가 절대 존경하는 성직자인 누엔 신부님으로 부터, 이해인 수녀의 시(詩)가 자주 오르락 거리고, 이젠 류시화 시인까지 같이 왔던 거다. 신영복교수에 다른 한국 시인의 시가 자주 인용 되었다. 다른 책들을 다시 읽으며, 새록새록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읽어가면서 감상문을 같이 나눌 것을 약속한다. 이 어설픈 글이 용비어천가로 읽히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이다.

주님, 60년사 편찬위원회에 힘 주심을 감사 합니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님의 뜻 안에서 이뤄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안태준 장로

2012 콜롬비아 니카라과 단기선교

“함께 웃고 함께 울라”

“Rejoice with them weep with them” 로마서 12장15절



콜롬비아 단기선교가 6월 28일 부터 까르떼헤나 에서 10일간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7월 21일 부터 28일까지 7일간 니카라과의 마사야 근교에서 의료 및 교육선교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콜롬비아 선교에는 youth group 5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니카라과 선교는 총 23명으로 연령은 10대 에서 60대 까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소화해 내기 위해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4/26일 부터 5/3일 까지 이유택 집사님께서 콜롬비아 대학선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선교지에서 펼쳐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것은 우리의 준비와 자원들이 어떻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알맞게 사용 되어지는가는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이유택 집사님의 선교패는 콜롬비아의 관 황 선교사님이 콜롬비아 대학 사역과 관련하여 5가지 중요한 주제중

1. 건강한 정체성과 성적인 순결함 (매년 4월)
2. 정직한 삶과 통합된 지성 (매 학기마다 일회)
3.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한 관계 (매년 8월)
4. 이기주의적인 리더쉽과 부정부패의 문제 (매년 10월)
5. 자원에 대한 청지기 역할 (올해 5월)

5번째 주제인 “자원에 대한 청지기적 역할” 과 관련된 주제로 경제 포럼에 대한 준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대학

에서의 강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의 강의 더우기 그곳 시(까르떼헤나)의원들 앞에서 강의 등 일인으로서 놀랄만한 선교의 행적들을 남기고 돌아 오셨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팀으로 씨를 뿌리고 오나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물을 주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셔야 하기에 그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역 하는 것이 우리 단기 선교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앞으로 두번 더 펼쳐질 단기 선교를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 보다도 어린 나이에 선교를 위하여 자원한 youth group 단원들을 위해 각별히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 바랍니다.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나 앞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신앙인의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콜롬비아 선교

장소: 까르떼헤나
선교사: 관 황 선교사님
일시: 6월28 -7월8일
선교단원

College

Youngji Cha (차영지)
David Sanghyuk Han
David Kim (다윗)
Hyoin Kim
William Choi
John Chung (정환진)
David Kim (김민준) Dentist

High School

Janice Lee (이상은)
Chaewon Bang (방채원)
James Park
장인석
Ben Ryu

Nicaragua 선교

장소: 마사야 근교
선교사: 전 구, 이 동홍 목사님
일시: 7월21일-28일
선교 단원
Rev. Alvaro Pena
Taejoon (TJ) Ahn,
Sang Chul (Jake) Park,
Jihui Kim
Hae-Seo Na
Hyang-In Kim
Mijin Kim
Caroline Kim
Yeonil (Yani) Choe

Elda Salazar
Danielle Kim,
Janice Cha
Jeong-Min Lee,
Sunyoung (Sunny) Lee,
(Jeremiah) Yoon,
Sueyoung (Yasmine) Lee
Dan Carpino
Andrew Green
Carmen Rita Lopez
Catherine Rodriguez
Hak (Paul) Kim
Hyewon (Christine) Lee



집사회

김동규 집사

소망과 결단으로 시작했던 2012년이 어느새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나 기도와 일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집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신앙공동체가 가족처럼, 친구처럼 곁이를 더해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2일 : 40년 전통의 어머니주일 점심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부터 고기를 볶고, 야채를 삶고... '손맛보다는 기도맛이지' 하면서 300인분의 카레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찬양제 후 변장로님의 예리하고 재미있는 심사평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낸 주일 하루였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온교회가 다 먹고도 베다니교회 식구들까지 카레로 섬길 수 있어서 더욱 아름다웠던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 5월 27일: 가정의 달, 5월에 알맞게 전교인 아우회집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150파운드의 불고기, 150개의 핫도그, 옥수수, 20여통의 수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화창한 날씨! 연로하신 권사님에서 겨우 한 달된 아기까지... 진정 3세대가 모여서 아름다운 봄햇살을 누리고, 담소를 나누고, 웃고 땀흘리는 흥겨운 한마음, 한가족의 큰 잔치였습니다. 온종일 땀벌에서 고기를 구워주신 집사님들, 배구, 줄다리기, 야구, 농구...게임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청년들이 곳곳에서 수고해주셔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나게 보냈던 하루였습니다.

* 6월 2일: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져서 기대한 만큼의 일손이 오지않겠구나 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준비한 덤스터가 얼마나 커보이던지요. 그런데 막상 교회 가니 일손이

너적했습니다. 차편도 없는데 버스타고, 전철타고 청소하겠다고 온 청년들을 보면서, 역시 교회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일손들을 위해 만두와 잡채를 준비해주신 상록회 권사님들의 격려 덕분에 모두들 힘을 내어 교회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고, 묵은 짐들을 다 버리고, 에어컨까지 다 달았습니다. 덤스터를 꽉 채우도록 말끔히 교회를 정리해놓고 보니, 우리들 마음까지 개운해지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앞으로 남은 집사회의 계획과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름의 문턱에 와 있는 지금,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편집주: 2012년도 집사회장으로 선출되었던 김우진 집사님은 직장관계로 이주하심으로, 김동규 집사님이 집사회장으로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5월 웨마의 밤



5월 웨마의 밤이 지난 27일 열렸습니다. 3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번 5월 웨마의 밤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유년부 어린이들로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과 어른 교우님들이 어우

러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마의 밤은 최현구 집사님이 리드하시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귀여운 유년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성경 암송(요한복음 3:16)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송을 함께 부른 후, 중고등부에서 지난 4월에 'coffee house' 때에 펼쳤던 코믹한 연기와 노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특순이 있었고, 중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정한진(John Chung) 전도사님의 “염려에서 감사로(Anxiety to Thankfulness)”란 제목의 은혜로운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후, 남선교회에서 교육 2부를 지원하는 장학금 전달이 있었고, 남선교회와 교육 2부에서 각각 해외 선교를 지원하는 선교기금을 해외선교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중보기도를 위한 시간에는 가족, 이웃, 환자분들, 그리고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선교를 위하여 함께 시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PWBoston Spring Gathering이 2012년 5월 20일 (일) Roxbury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초청강사로는 전 TV Anchor woman/reporter로 수고하던 Rev. Liz Walker로, 지금은 목사로 안수 받고 Roxbury Presbyterian Church 에서 Interim preacher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Reporter로 일하던 당시 아프리카의 수단에 당시의 전쟁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갔다가, 그곳의 열악한 환경과 사정을 보고 “My Sister’s Keeper” 란 단체를 통해 mission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5:43-48의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교회의 여선교회원

이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닌, 밖의 세상에 손을 뻗어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불꽃을 지펴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영순, 김동숙, 노윤경, 윤미자, 김한나 집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수련회가 4월 13-14일 (금-토)에 Stony Point Retreat Center, NY)에 있었습니다.

주제 : “공홀의 진리를 심어 하나님의 정의와 화평을 이루자.” (시 85:10-11)

강사: 김정숙 목사 (NKPW Spiritual Advisor)
우리 교회에서는 김영순, 김한나 집사가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갖고왔습니다.



에스터 여선교회

강혜정 집사

마이크 테스트 소리, 소근소근 웅성웅성,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기대감과 들뜬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사회자의 첫 음성이 들립니다. 어머니주일 찬양제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남선교회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 없어라” 를 함께 부르며 시작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축축해집니다. 각 구역이 나와서 찬양과 율동, 스킷, Rap의 다양한 장르의 음률에 맞춰 성도님들은 어깨를 들썩거리기도 박수를 치기도, 비와 햇빛이 함께 공존하는 짧은 순간처럼 분명 웃긴데 마음이 찡하기도 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구역이 다음 차례인지도 잊어버릴만큼요. 중간 중간 이재익 사회님의 지방별 사투리를 쓰며 읽어주신 시편 23편은 하나님도 때론 사투리로 우리들의 attention을 요구하고 계신건 아닐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머니 주일 찬양제는 큰 교회에서 자칫 스쳐 지날 수 있는 교인들 사이에 큰 교류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울

해는 특히 중서구역, 청년부, 부부청년의 증가된 참여도로 무대를 꽉 채웠고, 반면 소수의 정예부대 ‘빛과 소금’ 이 혜성처럼 나타나 구역원들의 재치와 탈런트를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구역원들간의 화합과 끈끈한 연결관계를 드러내었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을까 생각하니, 보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선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이런 한바탕 어우어짐의 장이 되도록 도움을 주신 남선교회의 물적후원, 집사회의 제일 맛있는 카레, 날카롭고 예리한 심사평임에도 쓰지않고 달기만한 심사위원님들의 comment, 이 날의 웃음들을 사진에서 재생시켜주신 사진부 집사님들, 행사의 진행을 도우신 에스터 여선교회의 이미정, 최정우집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셨던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주일 찬양제



어머니 주일 찬양제에는 모두 13그룹이 참여하여 찬양제라기 보다 예술제라고 해야할 정도로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종합예술축제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집사회 남집사님들의 마련한 카레라이스 오찬을 푸짐하게 나누며 심사위원 변화경 장로님의 날카롭고도 해학적인 심사평을 들었습니다. 각 그룹의 심사평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예쁜 율동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직접 노래를 불러주길 바랍니다.

초등주일학교: 노래와 함께 energetic한 율동이 좋았습니다.

중고등부: choreography-worship dance가 좋았으나 가사와 율동이 서로 어울리지 않았고, 연극은 배우의 역할 표현이 애매하였습니다.

남선교회: 준비가 안된 찬양으로 성의가 없어보였습니다. 상록회원에게 선물도 하며 아부성이 많았으나 마음만 고맙게 받겠고, 지휘할 때 악보를 옆에 끼고 하는 지휘자는 fire감입니다.

중앙1구역/상록회: 지난해 보다 준비가 덜 된 감이 -예년에는 고운 한복으로 의상을 하셨으나- 없지 않아 있었으나 지난 해들과는 다른 곡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심으로 존경스러운 자세를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2,3,4 구역: 복장이 마치 스튜디오스 같은 분위기였고, 곡에 리듬감이 없었으나 후편에 speedy했고, 음악으로 흥을 표현은 하지 못했으나, 몸 놀림 특히 장로님들의 shameless한 몸 놀림으로 대신 표현을 잘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불협화음으로 악보를 던지지 않고는 수습이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 1,2 구역: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까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구역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몸살은 적극성과 어른들의 연약한 모습, 하지만 합심으로 노력함이 보여 가슴을 찡하게 하였습니다.

부청: 모두 같은 티셔츠를 입고, 숫자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만, 젊은 부부들의 어색한 사랑 표현과, 화음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unisong으로 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중앙5 구역(빛과 소금): 종합예술로 표현했고, 기대감 보다 훨씬 좋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multi-media를 사용해 music video제작에 구역원 모두 배우가 되어 screen에 나오게 준비한 것이나, 한국어, 영어 모두 사용하여 감동적이었습니다.

중서 1,2,3,4,5 구역: 숫자적으로 압도적이고, 통일성 있는 복장, 화합, 화목, 교제를 느끼게하는 연습과 노력이 보였습니다. 좋은 기획으로 처음 어린이들이 등장하고 단계적인 idea가 합쳐졌으나 예상이 쉬운 단계구성이었습니다. 예술적인 것은 없었으나 지휘자를 잘 따라주었고 합창으로서의 좋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서 1,2 구역: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반주에 맞춰 준비해 주었고, 숫자에 비해 소리가 커서 좋았고, 탈렌트가 없는 구역원들의 율동에 어색함이 있었으나 variety가 성공했습니다.

영어예배부: 좋은 idea로 젊은이들이 어머니의 역할들을 잘 표현해 주어 어머니 주일에 좋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Multimedia를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어 이해를 쉽게 해주었습니다.

청년 1,2부: 수동적인 노래와 손뼉치는 율동에 재미가 없었고, 노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재미없는 준비에 화도 났습니다.

모든 심사평이 끝나고 조유미 집사가 등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용기상: 중앙 2,3,4 구역 -장로님들의 shamelessly보여준 율동과 악보 던지기등의 용기에 드립니다.

Idea상: 영어예배부

3등: 남서 1,2 구역

2등: 중서 1,2,3,4,5 구역

1등: 중앙 5 구역(빛과 소금)

남선교회

이창호 집사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는 남선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토요일에 우리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 장학금 모금 및 해외선교지원 골프대회를 화창한 날씨와 함께 무사히 마치게 하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 더 감사한 것은 골프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뒤에서 물질로 동참하여 주신 박준재, 김진기, 권복태, 최창열, 권오훈, 엄제관, 박종열 집사님들과 최연일, 이정규, 장양술, 한승희, 김영범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여하시며 따로 후원하여 주신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 27명이 참여, 7개조로 나뉘어 실력 발휘한 결과 챔피언에는 박오셉 성도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경환 집사님께서서는 작년 이어 올해도 헌신과 더불어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T-Shirts을 선물로 지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5월 13일 어머니주일에는 남선교회에서 먼저 오프

닝 찬양 “어머니 은혜”을 김영범 장로님의 지휘와 더불어 힘차게 부름과 동시에 상록회 어른들께 조그만 선물을 증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웨마의밤 시간에는 학생들 장학금 및 해외선교 지원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벌써 남선교회 3대째도 반년이 지나고, 남은 반년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루터기 청년 2부

서기 김미진 교우

2012년도 그루터기 청년 2부 수련회가 (4월 13-15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장 28절)” 라는 표어를 가지고 The Salvation Army Wonderland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습니다. 현 Professor of New Testament, Colorado Christian University (CO), PCUSA 소속 목사님이신 김도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학기동안 1. 복음이란 무엇인가, 2. 돈, 섹스, 권력, 3.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3 주제 가지고 5명의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였으며,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조원들이 함께 생각들을 나누며 4월 29일에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름 학기가 시작하면서 엄순호 형제가 성경 공부의 서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청년 2부 회원 중 2명씩 자발적으로 리더가 되어 성경 공부 문체에 답하며, 허신영 목사님께서 전체 질문과 토의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2-3명씩 짝을 지어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짝기도를 합니다.

지난 5월 20일 국외 선교 위원회 주최의 선교 후원 바자회가 청년 1, 2부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자회에서 메뉴는 비빔밥과 콩나물국이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청년 2부 회원들은 다양한 outdoor activity, 즉 제 3회 청년 2부 볼링 대회 (5/25), 전교인 체육대회 (5/27), 교육 2부 바베큐 파티 (6/10), 영화 관람 (6/15), 카약킹 (6/29) 등등 학업과 일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2부 회원 중 박신혁 형제, 김윤경 자매, 박혜경 자매, 여주혜 자매가 졸업을 하였으며, 이봉열 형제와 이유리 자매가 5월 12일 한국에서 화축을 받았습니다.

매주 저희 청년 2부를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우시는 손길과 베푸시는 마음 덕분에 저희 청년 2부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그루터기 청년 2부 표어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청년들” 처럼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중고등부

황동준/안은신 집사

이번 4월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학생 38명, 선생님 6분, 그리고 초대 찬양팀 6분이 동원되어 총 50명이 Grotonwood Conference Center에서 2박 3일동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Harvard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Gordon 신학에서 졸업하신 댄 리(Dan Lee)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Living for The Audience of One” 으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기도의 시간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맛있는 스모올과 라면도 먹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 학생들이 친해지면서 중고등부 그룹이 더 튼튼하게 단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후원금도 내주시신 학부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에는 견신/세례 겸 졸업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견신회는 지난해와 달리 고등부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이 각자의 testimony를 나눌때 저희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 Minjea Jo, Tommy Kim, Sarah Kim, Ben Ryu 입니다. 이제 작별의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해냈다!, 축하한다” 라는 말과 함께 중고등부의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저학년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가길 바랍니다. 이 파티는 학부모회 주최로 열렸고, 어머니의 솜씨로 마련된 음식은 레스토랑 뷔페보다 더 맛있고 푸짐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사회와 performance로 더욱 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면에서 준비해주시고 챙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5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쉼마의 밤에 중고등부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정한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특송으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삼세대가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김상은, 오가하 선생님들이 청년1부에서 중고등부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난 8년동안 꾸준히 중고등부를 섬기신 이동윤 선생님께서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타주로 이사하십니다. 그동안 모든 수련회와 lock-in 등 많은 이벤트에 참석해 주시고, 학생들을 동생과 같이 챙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이동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신 두 선생님도 중고등부와 오랫동안 함께 섬기며 우리 중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학생들이 자라면서 앞으로 있을 대학진학 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많은 도움과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아래 층에 있는 저의 예배실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광고로, 6월 24일에는 저의 중고등부 주체로 선교헌금을 위해 비빔밥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이 판매합니다. 100개만 준비할 예정이니 선착순으로 빨리 오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또, Red Sox Yankee game raffle 도 할 예정입니다. 이 raffle은 중고등부 악기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20일 중고등부 세례, 견신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Jean Park, Yeolim Jo

견신: James Park, Pearl Choi, Chaewon Bang

Confirmation Testimony

James Park

When I think about my life two or three years ago, from the path I was walking on at the age of 13, I would have never guessed that I would be the way that I am today. I grew up going to church with my family. I went to church every Sunday and I learned the same basic things that everyone was taught in bible study. In the first church that I went to for many years in my younger childhood, I had many friends that I played with and cared for. It's sad to say, but I never really had many friends at school, at least not close friends as the ones I had at church. Every week, I would go to school waiting for the weekend just so that I could see my church friends. Our families knew each other well, so every weekend, we would see each other and play together. I became very attached to them as a young boy and I went to church not wanting to worship and learn more



When I was around 7 years old, the church that I attended went through a split and many people left going to different churches. Our families stuck together and went to the same church. It was a bit of a change, but I was okay with it because I still had my friends. After about a month of going to that church, my family suddenly moved to the Korean Church of Boston, but this time, it was only us. I complained and complained to my parents saying that I didn't like this church because I couldn't see my

friends anymore. Even though we went to different churches, we still saw each other during the weekends. But after a year or so, we stopped seeing each other and I was alone. I didn't have much friends at school and now my best friends were gone. I went to church only following my parents not trying to make new friends and not even praising God to the fullest. It was just a weekly routine and after a couple of years, I stopped wanting to go to church. I started to go to church maybe once a month and everybody would be surprised when I would show up to church on time which was very r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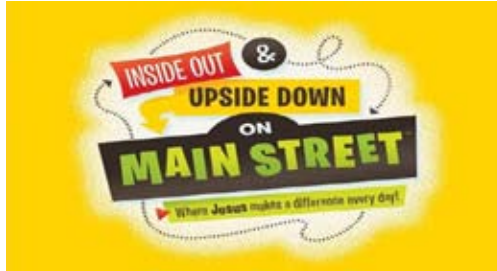
In 6th grade, I moved up to the youth group and a lot of things changed. The songs we sang during praise changed, the age group of kids changed, and the sermons we received changed. These changes really helped me to not mind going to church anymore. I started to like the songs we sang at praise instead of the childish songs we would sing in Sunflower. The sermons that John JDSN would give us always surprised me because he would sometimes talk about things that I was struggling with in the past week or month. Without me having to ask him, I was able to overcome obstacles in my life by listening to his sermons. Not only did John JDSN preach great sermons, but he also was very welcoming to me and all of the 6th graders moving up into the youth group. I don't know why, but he would always smile and greet me every time I would occasionally go to church. I didn't mind going to church again, but it still didn't change anything until when I was

around 12 years old and JDSN asked me to come to the summer retreat. I was a lonely guy with no friends and nothing to do, so I decided to go. My sister and I went to the retreat not knowing what to expect and had a great time. I made some friends, but one particular friend that I made at that retreat was Chaewon Bang. When I first met Chaewon, who could barely speak English and was totally different from me, I never thought we would even become friends.

Right now, Chaewon is my closest friend. After going to that retreat and meeting new friends, I felt more a part of the church. As I became closer to my friends in the youth group I noticed that I also became closer with God. I began going to church more often, almost never missing a Sunday. I started going to all of the Youth Group events and activities including the lock-ins, retreats, and outings. I have really gotten to become close with the Youth Group and I actually feel as though we are one family. I love each and every one of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feel so blessed that God gave me these amazing friends that support me and encourage me to be a better Christian. Being friends with Chaewon and all of my other friends in the youth group really opened my eyes when I saw their love and compassion towards God. I learned how strong God's love is for everyone and I really felt this love within our youth group. I feel as though God's love is what really brought me closer to him. Like a domino effect, his love brought me to the youth group and the youth group brought me closer to him.

Whenever I go before God in prayer I always thank him for the youth group because I know that without them, I wouldn't know God as I know him today. I wouldn't know the love that he has for us. The love that is so strong that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die on the cross for our sins. I now know that God is my one and only savior and that my job in this life is to spread the love that he has given me to the people who don't know him yet, so that they may be saved. Outside of church, I try to share God's love by showing love to other people. I try my best not to be negative and I try not to have any enemies. I try to be friendly towards everyone. When I see kids made fun of at school, I sometimes try to stop it. I try to be a good example that God would be proud of. I hope that as my faith grows, I will do bigger things to glorify God.

KOREAN CHURCH OF BOSTON SUNFLOWER CHILDREN'S GROUP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2012



날짜 : 6월 19일 (화) 부터 22일 (금)
시간 : 5 - 8 pm (Dinner included)
장소 : Korean Church of Boston
대상 : 3세부터 5학년

3월 마지막 주일에 이영길 목사님 우리 유년 주일학교를 방문하시어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뜻깊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어린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파릇파릇 봄기운이 찾아오는 4월 첫째 주일 부터 유년 주일 학교의 예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오전 11시에 시작하던 예배가 오전 11시 30분으로, 30분 늦어져서 시작 하게 되었고 장년 성경공부, 찬양대, 그리고 중고등부 등으로 인하여 교회에 부모님과 함께 11시에 도착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Pre - Activities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마다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들을 두 group으로 나누어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아이들과 교제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일 학교의 찬양팀에서 고운 목소리를 전해 주시던 심세희 선생님께서 지난 3월을 마지막으로 주일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주일 마다 심세희 선생님을 통하여 들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리워지며, 그동안 유년 주일 학교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심세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6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어김없이 아이들 곁에 찾아 왔습니다.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 INSIDE OUT UPSIDE DOWN ON MAIN STREET WHERE JESUS MAKES A DIFFERENCE “ 라는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여름 성경 학교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튼튼히 세워 주시길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보스톤 유년.초등 주일 학교에는 문이 없습니다. 보스톤 유년.초등 주일 학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보스톤 유년.초등 주일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 또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 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물 주시고 가꾸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실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0여명의 맑은 영혼들과 주님의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렵니까?

박진호 전도사님, 진정원 집사 그리고 박선희 집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교우의 서신

이해영 집사

벌써 한국에 돌아와 네 번째 달을 맞았습니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저녁 회의 다니다 보니 빠르게 체중이 늘어나 급기야 지난달 시행한 건강 검진에서는 완전한 성인병의 피검사 결과를 받고 반성하고 체중을 줄이려 노력중입니다--;;

체중도 늘었지만, 서울에서 짜증내고 급하게 살다 보스턴에 가서 공부하며 교회 다니며 많이 성격이 좋아져서 서울 돌아오면서 '서울가면 착하게 살자' 결심했는데 다시 조금씩 병원에서 resident나 외래 환자에게 짜증내고는 저녁에 자기 전 짜증낸 것이 생각나 반성하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착한 마음을 주시고 더불어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께는 두 번 들으면 알아들으시는 지혜와, 환자분의 증상만 물으시는 예의와, 심장을 진료하는 제게는 심장 증상을 이야기하시는 적절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주 연락 드리려 했는데 역시 바빠지다 보니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4월 1일로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로 승진했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지만 병원의 하루하루가 별 변화 없는 일상이어서 그래도 이런 새로운 일 있을 때 계기 삼아 연락을 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돌아올 때는 매년 작은 건이라도 만들어 보스턴에 가고 싶었는데 역시 동부의 보스턴은 멀어

서 올해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부의 LA에서 가을 심장 학회가 있어 아마도 LA까지만 갔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대신 서울에 오실 일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최정열 집사님께서 4월(5월?)에 오신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오시기 전에 연락 꼭 주세요. 아직도 서울은 꽤 쌀쌀합니다. 아마도 거의 황사 올 시기에 봄이 같이 올 것 같습니다.

요즘도 틈틈히 Celtics 경기 보고, facebook의 보스턴 가족들 글 보며 보스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좋은 봄 날씨가 보스턴에 올 시기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부활절을 기쁘게 맞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해영 올림

Hae-Young Lee , M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01, daehak-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110-744

하늘 소리 (사물놀이 팀) 소개

최정열 집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하늘 소리 팀장이 된 최 정열 집사입니다. 전 팀장이신 김 현주 집사님께서 너무 잘 하셔서 제가 그 후임역을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뿐입니다.

제가 사물놀이 팀원이 된지 이제 막 6개월이 되었는데 재미를 붙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한국인들이 펫속에 사물놀이의 가락이 진하게 배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반부터 10시까지 강사님을 모시

고 교회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나 경험자 똑같이 우대해 드리니 부디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팀원을 보강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781-775-8752 나 davechoi565@yahoo.co.kr 로 연락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 드리면서...

새교우 환영반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에 오신 새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거의 매달 새교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영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3번의 교육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첫째 주는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장로교회 교단에 대해 배웁니다.

4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박노순/김미리, 송진우/김진영, 이윤송, 정민수(2월 수료) /최윤정, 주남석/이수현 교우입니다.

박노순/김미리 교우는 슬하에 아들 둘 (박현성 5세, 박관우 3세)과 딸 하나 (박수리 1.5세)를 두고 있습니다. 박노순 교우는 백베이 (Back Bay)에 개발사 무실을 둔 인터넷 관련 사업체를 현재까지 3년 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신앙생활 안에서 이어가기 위해서 보스톤 한인교회에 참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리 교우는 어릴 때는 할머니의 권유로 성당을 다니다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새로운 신앙생활과 함께 현재 남편과의 인연까지 이어져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진우/김진영 교우는 슬하에 딸 혜원 (6세)을 두고 있습니다. 송진우 교우는 현대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현재는 브리검영우먼스 병원 (Brigham & Young Women's Hospital)에서 간질성 폐질환을 연구주제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

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새로운 곳에서 더욱 신실한 신앙활동으로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진영 교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족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낯선 타국생활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신앙과 교회생활은 많은 심리적 안정과 함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송 교우는 성균관대학교 의대 (병리학) 재직 중으로 두번째 안식년을 맞이하여 브리검영우먼스 병원 (Brigham & Young Women's Hospital)에 1년 예정으로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윤송 교우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 수학 중에 있습니다.

정민수/최윤정 교우는 2011년도에 우리 교회에 출석, 제 2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하버드 (Harvard) 보건대학원에서 연구/수학 중에 있습니다. 정민수 교우는 지난 2월 새교우 환영반을 먼저 거치고, 이번 4월 교육에 아내 최윤정 교우와 다시 참석하였습니다. 최윤정 교우는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던 중 최근 휴직을 하고 남편이신 정민수 교우와 함께 3월에 보스턴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인도로 참석하게 된 새신자 교육을 통해 보스턴에서의 새로운 신앙생활과 교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주남석/이수현 교우는 슬하에 아들 둘 (주찬협 12세, 주예준 9세)을 두고 있습니다. 주남석 교우는 수원아주대 병원에서 12년차 의사로 가정과 전문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터프스에서 연수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 소속의 서둔교회 (또한 2013년도에 60주년을 맞이하는)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수현 교우는 짧은 교사생활을 뒤로하고 육아와 가정에 전념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권유로 남편을 비롯 시부모님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만남”이라는 기도 제목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보스턴에서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김창국/이나영, 이석홍 (예릭)/조유남, 박영배/오리라 가정입니다.

김창국/이나영 교우는 결혼 7개월 째의 신혼으로 최근 연수과정 이수를 위해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현재 Ernst & Young (글로벌 회계

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연수과정을 위해 보스턴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나영 교우는 장로이셨던 외조부와 목사이신 이모부가 중심이 된 외가댁의 신앙적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시작했습니다. 절실함도 아쉬움도 없었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머물던 집에 아쉬움이 있던 중 보스턴 이주와 새로운 신앙환경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홍(에릭)/조유남 부부는 슬하에 아들 여준(2세)을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말에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이석홍(에릭) 교우는 4세때 캘리포니아로 가족이 이주, 2008년에 결혼하여 보스턴 생활은 2개월 남짓 되고 있습니다. Boston Private Trust Bank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 근무를 위해 보스턴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Pasadena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중고등부 교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이신 아버지 슬하에서 신앙생활을 시작,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유남 교우는 가족 중 홀로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보다 성숙되었고, 잡지사 기자시절 중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미국 생활이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신앙심 깊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같이 할 수 있는 점을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배/오리라 부부는 결혼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신혼부부로 최근인 3월 중순에 학업을 위해 서울에서 보스턴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배 교우는 CJ 홈쇼핑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부인이신 오리라 교우의 학업 지원 및 자기계발을 위해 보스턴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리라 교우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음악교육 (재즈 분야)을 위해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찌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부모님 슬하에서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을 접하였으며 보스턴에서 새로운 신앙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저녁 만찬을 갖는데, 지난 4월 새교우 환영만찬은 이문영/김춘미 집사님택에서 있었으며, 5월 새교우 환영만찬은 전교인 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의 일정으로 인해 환영만찬이 연기되었지만 다음 새교우 만찬을 기약하며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새교우 환영만찬에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이문영/김춘미 집사님 가정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월 새교우 환영반은 1일, 8일,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환영반 교육을 통해 교회를 알고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교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에 관한 문의는 교인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님과 윤미자, 김현주 집사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광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새찬송가로 교체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친교실에서 주문을 받습니다. 성경 합본도 구입 가능합니다 (담당- 1부: 홍도화 집사, 2부: 김희정 집사).

교우동정

소천:

1. 최준영 집사님과 홍신숙 집사님 부친께서 3월 중순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2. 정은하 교우님 모친께서 3월 중순에 소천하셨습니다.
3. 박준재 집사님 부친께서 3월 말 브라질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출생:

1. 이완휘/김은성 교우택에서 4월 중순에 득남(규빈, Daniel) 하셨습니다.
2. 배건국/최한나교우택에서 4월 중순에 득남(재환, Jaden) 하셨습니다.
3. 이강민/손정은 교우택에서 5월 말에 득남(서준, Joseph) 하셨습니다.
4. 이에릭/조유남 교우택에서 5월 말에 득남(주안, Aaron) 하셨습니다.

○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



한국학교



Ransom youth Group



청년 2부 봄수양회



시내산 동우회



어머니 주일 찬양제



보스톤 노회 여선교회



전 교인 야유회 및 체육대회



사물놀이 동우회